


윤봉길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

전시기간 : 2017.8.8.(화) ~ 8.17.(목) 09:00~18:00

전시장소 : 김제교육문화회관 징계갤러리(1층)



김제교육문화회관

본 안내문은  독립기념관의 자료를 편집·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진 별

당당한 순국

사형 당일, 일본인 검찰관 네모토씨가 사형을 집행할 것을 알리며 윤봉길 의사에게 유언을 물었습니다. 평평한 긴장감 속에서도 윤봉길 의사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이리 각오한 것이다. 할 말은 없다." 사형장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는 두 눈이 흰 천으로 가려지고 묶은 십자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 앞에는 일본 군인 두 명이 총을 겨누고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긴장되는 최후의 순간, 윤봉길 의사는 조용히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순국한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유물

의거 당시 가지고 있던 도검과 지갑으로, 순국 후에 무술대신 유물인 가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상하이의 불씨, 조국 광복으로 피어나다

어느 일본인의 고백

나라를 되찾게 되자,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아오려는 노력이 펼쳐졌습니다. 1946년 3월,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은 가나자와에 가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땅에 묻을 때 불경을 읽었다는 각존원(覺尊院)의 야마모토 료도(山本 遼道)라는 여승의 고백으로 드디어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육군묘지로 가는 통로로, 발굴단이 휴식처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화장했다고 거짓으로 알려놓고 몰래 사람들이 다닌 길에 묻어두어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양심 있는 일본인의 고백으로 늦게나마 윤의사의 유해를 찾아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해 발굴 장면



1946년 7월 7일 국민장으로 거행된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세 분의 장례식

